

강진군, 고려청자 발굴조사 생생 현장 공개

대구면 사당리 8호·40호 요지 제작 공방 건물지·청자 가마터 강진청자축제 기간 9일까지



대구면 사당리 109번지 일원 고려청자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요지' 중 사당리 요지 발굴조사 현장을 강진청자축제 기간인 9일까지 공개한다.

발굴 현장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9번지 일원으로 사당리 8호 요지와 40호 요지가 위치한 곳이다.

전성기 고려청자 핵심장소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사당리 2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많은 최고급 고려청자 파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려청자를 제작했던 공방 건물지와 청자가마터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되고 있는 곳이다.

1차 발굴조사에서 가마 1기, 폐기장 3개소, 건물지 1기, 고려 시대 도로유구 1기 등이 확인됐다.

초기청자부터 상감청자, 관사·간지명 청자 등 최고급 청자가 출토돼 사당리 일원이 우수한 품질의 청자를 제작했던 중심지였음을 입증했다.

현재 발굴조사 현장에는 최고급 고려청자를 비롯해 청자를 만들었던 공방 건물지와 관리하는 관청인 치소(治所)가 발굴되고 있다.

그는 이어 "태풍으로 연기된 강진군·부안군·해남군이 세계유산 공동 추진 협약 체결도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며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청자 생산 시스템 규명을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한·중·일 도자 요지의 구조와 생산체제' 주제로 7일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외롭고 위태로운 중·장년층 힐링선사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17일 공연

장흥문화예술회관서

장흥군이 17일 오후 7시 30분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

화공간 공모사업'의 하나인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이다.

연극은 중·장년층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시대의 외롭고 위태로운 중·장년층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사한다.

극 중에는 아내를 딸네 집으로 떠나고

홀로 강아지를 돌보며 지내는 영호, 나날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중수, 사춘기 자식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경년기 오목, 늦은 나이에 손주를 돌보며 큰소리 한 번 못 내는 영자가 등장한다.

각자 사연 있는 이들이 짙질방에 모여서 한바탕 수다와 입담으로 자신들의 사연을 풀어낸다.

희극인이자 탤런트인 유행관을 필두로 김태향, 우상민, 권기선 등이 출연해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연말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장흥군은 올해 연말부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달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해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 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물관리 우수기관 표창 '제10회 물 산업미래비전포럼'

강진군이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년 제10회 물 산업미래비전포럼'에서 물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강진군은 식수난이 심한 가우도와 미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규모급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소득시설 관리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물 포럼과 환경타임즈 등이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매년 물 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석기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군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상수도 노후 배수관의 현대화와 수질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영암군, '마한축제' 12일 개막

서남권 첫 '어린이 직업체험 교실' 운영 등 다채

영암군은 12일부터 13일까지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2019 마한축제' <포스터>를 개최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도·군의원과 세한대학교 총장, 문화예술단체 등 각계각층 35명을 대상으로 마한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 7월 새마을 축제팀을 구성하고 마한축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방문객의 새로운 타격을 설정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전남 서남권에서는 최초로 어린이 직업체험 교실인 키자니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키자니아를 통해 119구조대·과학수사대·CSI·한의원·지과병원 등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한문화공원에 켈벌바운스



·농구바운스·트램플린·키즈라이더·에어볼풀장 등 다양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명랑운동회를 통해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행사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동명 영암군수는 "내년엔 상무터에서 급등관람이 발굴되어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으로 추정되는 큰 성곽을 바탕으로 마한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한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 활동

어린이집연합회 가족한마당잔치서 맞벌이부모 대상

영암군은 최근 열린 어린이집연합회 가족한마당잔치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모가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행사 참가자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신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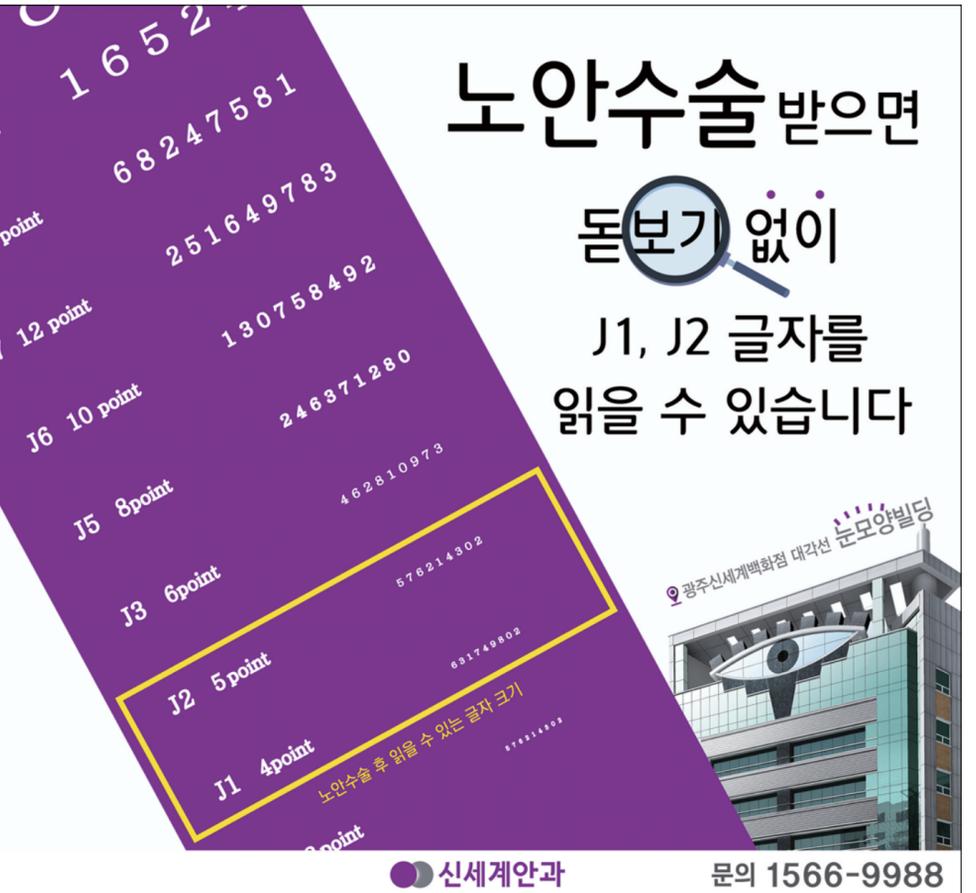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